

## 01 목회권면

- ① 5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의 기초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늘 화목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 02 예배

- ① 5월 10일부터 주일학교, 청년, 오후, 수요일예배를 시작합니다.
- ② 모든 모임은 5월17일부터 시작합니다.

## 03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작은 5월 15일부터이며, 찬양 인도 및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 지원 받습니다. 담당 전화 : 010-7547-8805

## 04 피택자 교육

다음주(10일) 3:20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분당입니다.

## 05 새가족교육

5월 17일 새가족교육을 시작합니다.

## 06 새벽차량운행

새벽예배 차량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전화 : 010-2661-0196

## 07 온라인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일조, 감사, 건축헌금등 헌금종류의 첫 글자와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선교-홍길동, 주정-홍길동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5월 3일  
7권 18호

*여는찬양	주기도문		
*예배선포	인도자		
*찬송	9장		
*공동기도문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570장		
기도	차금미권사	최경란권사	이명호권사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오늘의말씀	신6:1-9		
찬양	은혜찬양대	호산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오늘의말씀	<b>“자녀를 가르치라”</b> 윤호식 목사		
봉헌	94장		
*친교	다같이		
*송영	아픔의 축복		
*축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해외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한경민, 윤정민, 강신모
반주자	하은미, 박은영, 김병준, 김슬기

오후2시

오후7시

5월10일부터

5월13일부터

5/4(월)	시4:1-8
5/5(화)	시5:1-12
5/6(수)	시6:1-10
5/7(목)	시7:1-17
5/8(금)	시8:1-9
5/9(토)	시 편 강 해

5월10일부터


■대표기도	1부	2부	3부	오후
5/10	문명숙	엄영애	김학수	장복실
5/17	노옥숙	조옥순	김정인	이가옥
5/24	김미숙	권경자	최영식	채석진

■식당봉사, 수요전도	
05/10 : 5지역(조옥순)	05/31 : 2지역(권경자)
05/17 : 6지역(오현애)	06/07 : 3지역(윤진순)
05/24 : 1지역(김민수)	06/14 : 4지역(정기숙)

■ 지난 주 등록

■ 1, 2 월 등 록 자

신주희(하나여성교)	박선민(유니게어선교)	이미정(롯데선교회)
최병주(4남선교회)	윤미란(유니게어선교)	김완수(3남선교회)
심주원(청년부)	진미숙(마리아여성교)	손미정(유니게어선교)

제 목: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요20:19-23)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20장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수많은 인사와 수많은 질문 중에 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치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그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은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심령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시38:3“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방해합니다. 죄는 범하기 전에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며,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한, 참 평화는 없습니다. 참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염려할 일을 자기가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할 때, 평안도 평화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마11: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주님은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나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기쁨이 옵니다. ✚20절“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참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09:30~10:20

4층, 새가족실

5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층, 드림실

미 정

4층, 새가족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본 당

5월 13일부터

■ 십일조

강예식 김귀근 김만수 노옥숙 석용문 송의자 유홍재 윤호식 이종길 이종부 장재욱 장중현 정순희 정영규 정유진 정필녀 조영호 진은자 채석진 최영식 최진호 홍은표 무 명

■ 감사헌금

강대의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고희환 노미정 노옥순 문다윗 문성우 문지연 북 희 신동현 엄영애 유홍재 윤준섭 이덕수 이복순 이종길 이항실 장정순 장중현 장해중 정명희 정선영 정순희 정필녀 조운순 채석진 하상호 한옥희 무 명

■ 선교헌금

강예식 강익희 김학수 복희 이항실 정명희 정선영 조미애 조옥순

■ 일천번제

김정혜 임채명

■ 주정헌금

김귀근 김만수 박인순 변성진 엄만우 윤선례 윤정민 이원규 임채명 조근석 차금미 최경란 최희원

기도 응답에 주셨는데 잠시 믿음의 연약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남은 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새로운 일터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법사에 감사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인 큰딸 가족, 작은아들 가족 코로나 19로부터 지켜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답답 수습 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병환이 회복되어 가게 해주신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사랑 회복과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가iani 가정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계 하옵소서, 개인 욕심을 버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대가 다시 찬양하게 해주신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물질을 되게 하옵소서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불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